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

1. 면담 결과

▣ **8. 12. 인천지방법원장과 익명 카페 개설자인 홍○○ 판사 면담**

▣ **법원장 제안**

- 카페 게시글에 복사방지기능 등 설정으로 유출 방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글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카페 운영에 대한 전산적 기술적 지원을 약속

▣ **개설자 입장**

- 자신은 카페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카페 회원 전체의 의견 수렴 후 조치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

▣ **그 외, 코트넷에 익명 게시판 설치 건의 있었으나 불가하다고 답변**

▣ **카페 공지글 제시 필요성**

- 홍판사가 카페에 의견 수렴을 위해 공지글을 올릴 예정이나, 본인이 비공개 전환 등의 조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입장이어서 공지글의 수위나 설득력이 약할 우려 ⇨ 적정한 수위의 초안을 제공할 필요 있음

2. 공지글 제시

▣ **기본 방향**

- 회원인 법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출방지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는 내용 및 표현 필요

▣ **예시**

이사야를 아껴주시는 판사님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최근 법원의 어른인 선배법관으로부터 우리 이사야에 관한 부탁 말씀 내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법관도 주변의 다른 법관들과 많이 상의하고 고민하신 끝에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의 요지는, 우선 이사야가 법관의 품위에 어긋나는 저속한 표현은 찾기 어렵고~~, 나름의 건전한~~

자정작용과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알고 있고, 익명 카페의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게시글이 대부분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그러한 카페의 존재나 게시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먼저 법관만 가입되는 폐쇄공간이라 하여도, 언젠가는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카페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변호사, 카페 회원의 가족인 기자, 검사, 변호사 등을 통한 유출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그리고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400명이 넘는 회원 중에 한 두 명은 동료 법관 못지 않게 기자와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이○○ 전 판사도 이사야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법관이 직접 유출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언론의 집요한 취재가 있으면 어차피 공개를 막을 수 없다. 모든 글은 언제가는 국민이 날 것 그대로 읽게 된다고 봐야한다.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예를 들어 올 초에 이사야에서 전관예우 논의를 하면서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 '주변의 부장님 심지어 단독 중에도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사람 있다', '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는 댓글이 있었다. 이런 글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이 갖게 될 극도의 사법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법관들이 앞으로 수십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을 하면 그 엄청난 충격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동안 언론이나 변협 등의 일부 문제제기는 '그들의 편향된 정보 내지 일부 사례의 과장'이라고 방어할 여지라도 있었지만, 법관들이 스스로 위와 같이 말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그냥 모든 사건에서 전관예우에 따라 불가능한 재판을 하는 조직이 되고 만다.

이사야 회원 대부분도 대부분의 법관처럼 법원을 정말 아끼고, 재판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연히 카페 글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합리적인 토론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방치하다가 저런 내용이 유출되면 뒤늦게 크게 후회하지 않을까.

전관예우 말고도 '부장판사가 기록은 전혀 보지 않으면서 사건처리 통계만 압박한다', '내 주심 아닌 사건일 때 법정에서 낙서하거나 딴 생각한다', '지원에서 사무분담은 정치판을 뛰어넘어 동물의 왕국 수준이다'라는 등 수많은 내용과 표현들이 우리 법관들끼리 토론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단 하나라도 국민이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묵묵히 일하는 법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다.

카페 회원 중에 '유출되면 그때 카페를 폐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유출되는 순간 법관의 명예와 재판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불신들이 카페 회원인 법관분들의 책임 때문은 아니지만,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의혹을 확산으로 바꾸고, 법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신을 촉발하는

데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법관들이 관심 주제에 대하여 일정기간(예를 들어 일주일)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난 후, 해당 ~~글을 삭제하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함으로써 외부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권유하셨습니다. 삭제하는 것에 비하여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면서도 유출로 인한 동료 법관 및 이사야 법관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하십니다.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글을 다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글이 영원히 사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이 자유롭게 논의가 진행되는 기간 중 (상당수 다른 카페들이 하고 있듯이) 모든 본글 및 댓글에 대하여 복사 방지, 펌 방지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 역시 법관들의 논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복사 방지 기능 등까지 제안하시는 걸 보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정말 염려하셔서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취지로 이해되었습니다.~~

~~유출 방지를 위한 삭제 제안에 관하여 종전에도 카페에서 논의가 있었고(운영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 당시 운영진은 동료 법관의 글을 선별하여 삭제하는 것은 운영진의 권한을 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글을 선별하지 말고, 삭제하지도 말고, 모든 글에 대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되, 필요한 회원은 운영진에 열람을 요청하여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운영진은 판사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